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

전화번호 : 033-630-4502 / 팩스 0502-193-4573

보도자료

2022. 11. 24.(목)

주책임자 :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조영민

제목

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선원 9명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직권 재심 청구

- 춘천지검 속초지청(지청장 오종렬)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출항한 건설호·풍성호에 승선하여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년 귀환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피고인 9명에 대해 오늘 (11. 24.)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음
- 피고인들과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선원 일부는 앞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, 검찰은 피고인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임
- 검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납북귀환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,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할 것임

1 직권 재심 청구 배경

▣ 이른바 '납북귀환' 사건

- 60년대 동해안 등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어선들이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하는 일들이 빈발하자, 정부는 어로저지선을 남쪽으로 변경 조치함
 - ※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(이하 '진실화해위)」 조사 결과, 당시 정부는 북한에 억류되어 고초를 겪은 납북귀환선원에 대해 처음에는 관용적이었으나, 북한이 이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에 활용하자 강경 대응
- 위 조치 이후에도 어부들이 어로저지선을 월선하고 북한패속정이 남하하여 선박을 나포하는 일이 반복되자, 정부는 '68. 11. 어로저지선을 넘어 납북되는 선원에 대해 반공법, 수산업법 등을 적용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발표를 함
- 이러한 상황에서 80년대 초까지 납북 후 귀환한 선원들이 수사기관에 구속된 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다수 발생함

■ 건설호 · 풍성호 사건 진행경과

- '68. 11. 건설호(11. 7. 거진항 출발, 6명 승선), 풍성호(11. 8. 거진항 출발, 8명 승선)의 선원들은 납북되었다가 '69. 5. 28. 귀환 직후 고성군 공공기관에 각 분산 수용되고, 합동신문반(정보기관·수사기관)에 의해 같은 해 6. 10.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음(풍성호 소속 선원 1명은 귀환하지 않음)
- 건설호, 풍성호의 선장·선원 등 13명은 6. 10. 선적지 관할인 고성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었고, 6. 23.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바, 13일간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됨
- 이후 위 13명은 반공법위반, 국가보안법위반,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'69. 9.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선장 2명은 각 징역 1년, 선원들 11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음

■ 직권 재심 청구 배경

- '22. 6. ~9.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건설호 선원 1명, 풍성호 선원 2명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사건이 개시되었고,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여, 11. 9. 위 3명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음
- 이에 검찰은 같은 어선에 승선하였다가 처벌받은 나머지 선원들에 대하여도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임

※ '22. 2. 8. 진실화해위도 위 건설호, 풍성호 귀환 선원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권고함

2 직권 재심 청구와 향후 계획

■ 재심 청구 대상자

- 건설호 선장·선원 등 총 5명, 풍성호 선장·선원 등 총 4명

■ 재심대상판결 사건 내용

- '68. 11. ~'69. 5. 건설호·풍성호 선장과 선원들이 공모하여 어선 조업 중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넘어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 탈출[반공법위반, 수산업법위반]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(국가보안법위반은 무죄)

▣ 재심 청구

- 검찰은 사건기록,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, 위와 같은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위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음

	귀환·처벌	재심 현황	직권 재심청구
건설호	6명	무죄 선고 1명(검찰 무죄 구형)	5명
풍성호	7명	무죄 선고 2명(검찰 무죄 구형) ※ 유족 재심 청구 1명(재심 개시 전)	4명

▣ 향후 계획

- 검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납북귀환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,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할 것임 ☑